

圖書館發展을 摸索하는 提言

李 鴻 球

(서울市立鍾路圖書館長)

■ 序 言

十年이 지나면 江山이 變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습은 刮目할 정도로 나날이 變貌하여가고 있다. 비록 안으로는 가난에 허덕이는 大多數의 人口를 안고 있는 苦悶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이를 克服할 經濟發展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先進國에 쫓아 가려는 안간힘과 意欲의 發露임에는 틀림없다.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바요 그대로 느끼게되는 바이지만 그러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허전한 감을 금할 수 없는 한 구석이 또 남아 있는 것 같다. 即 이대로 가도 좋은가 하는 懷疑를 느끼게 되는 그 느낌의 밑 바닥에는 隱然中 마음의 充足을 갈구하는 一面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充足은 精神의 欲求이며 文化民이면 누구나 希求하는 當然한 욕망이다. 이 욕망을 充足시킬때 文化國民으로서의 資質도 向上되고 文化發展도 成就할 수 있으며 따라서 眞正한 富強도 누릴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文化 없는 民族은 일지기 地球上에서 자취를 감추었다는 事實만 보더라도 可히 짐작할 수 있다.

學校教育이 文化 繼承의 基礎作業이라고 할수 있다면 圖書館活動은 그 普及이요 活用이요 보다 높은 文化創造에의 契機라할 것이다. 그러나 解放以後에 各種 文化機關이 比較的 發展하였고 特別 各級學校가 量的으로 大幅 增加하였으나 圖書館만이 社會의 無關心 속 에 묻혀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事情도 있겠지만 圖書館이 지니고 있는 特殊性에 基因한다고 볼 수 있으니 우리는 이를 貫徹해 檢討함으로써 앞날의 發展을 摸索하지 않을수 없다.

■ 圖書館의 體質과 維持條件

圖書館을 定義하여“圖書館은 圖書및 그와 類似한 資料를 蒐集 整理 保管하여 讀書·調查研究·趣味·娛樂에 이바지할 目的으로 組織運營되는 施設이다”라고 한 것은 圖書館의 機能面을 說明한데 不遇하다. 이것은 圖書館의 目的은 될 수 있어도 圖書館이 成立될 수 있

는 與件과 圖書館이 成長할 수 있는 要件을 뜻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진다.

複雜한 組織을 갖인 이 社會에 있어서 圖書館이 存立하고 維持될 수 있는 條件을 찾아 내려면 先 圖書館이 他 機關과 比較하여 지니고 있는 特殊性 即, 그 體質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다.

첫째 圖書館은 文化的 繼承과 發展의 契機를 마련하는 곳이므로 文化가 없거나 그 水準이 아주 낮은 社會에서는 成長하기가 極히 어렵다. 뿐만 아니라 비록 文化를 갖었다 할지라도 이에 對한 認識과 關心도가 어느 정도 向上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바꾸어 말하면 圖書館이 發生도 成長도 하지 못하는 社會는 文化水準이 아주 낮은 社會라는 것을 立證하게 된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文化와 文化民의 產物이다.

둘째 圖書館은 營利事業이나 權力機關과도 다른 奉仕機關이다. 權力機關이나 營利事業은 어떠한 社會에서나 比較的 發生하기 쉽고 成長하기 수월한데 比하여 非權力 非營利 事業은 保護 育成 없이는 成長못한다. 더욱이 圖書館은 文化機關중에서도 受益者負擔原則이 適用되지 않으며 財政面에서 消耗만 하는 事業이다. 그러므로 圖書館事業은 助長事業이어야 한다.

셋째 圖書館은 共同關心으로 連結된 集團이 없다. 圖書館을 利用하는 그 地域社會의 住民은 圖書館을 向하여 組織된 集團이 아니라 하나 하나 分散된 個人이다.

이點 學校와는 다르다. 學校에는 組織된 學生集團이 있고 그 위에 後見團體인 學父兄會, 同窓會 등이 있어 강한 紐帶意識으로서 서로 엉키어 있지만 圖書館은 現時點의 社會라는 바다속에 홀로 떠 있는 외로운 孤島와 같은 存在다. 勿論, 圖書館 끼리의 連結體인 圖書館協會가 있지만 그 수나 組織面에서 볼때 比較가 안되며 個個 圖書館과 密接한 對話를 나누기에는 거리가 먼 포괄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圖書館은 그 스스로의 存立을 維持하기 爲하여는 恒時 그 周圍에 同情者, 協助者를 끌어 들이는데 努力할 必要가 있다.

끝으로 圖書館은 行政機關과 달라 機構組織에 앞서 施設 具備가 要件이 된다. 行政機關은 機構만 가지고 도 움직일 수 있지만 圖書館은 施設없이는 機能을 發揮할 수 없다. 그 施設中에서도 圖書는 圖書館의 生命이다. 이와 같은 施設優位에는 經費先要라는 條件이 따르므로 이것 또한 圖書館 發展을 爲하여는 가장 큰 難題의 하나가 된다.

以上에서 考察한바와 같이 圖書館의 成長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文化를 繼承發展하려는 社會的인 共同關心이 集中되고 그것이 行政에 反映될 때 비로소 可能하다고 하겠다.

■ 文教行政과 圖書館

一國의 文教政策은 그 國家의 未來像을 追求하는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으므로 그야말로 긴 眼目과 높은 洞察力으로써 樹立하여야 할 것이나 우리 나라는 解放以來 一貫性없이 갈팡 질팡하였으니 이 속에서 文教行政이 제대로 進行될리가 萬無하다.

한 마디로 文教行政이라고 하지만 그중에는 學校教育을 주로 擔當하는 教育行政과 文化一般을 對象으로하는 文化行政으로 區分할 수 있는데 文教部는 建國以來 그 에너지의 大部分을 教育行政에 消耗하느라 文教行政을 돌 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한 關係로 文教部가 만들어 놓은 學術院, 藝術院을 비롯하여 圖書館, 科學館, 博物館, 美術館 등은 國家體面을 爲한 標本의 裝飾物로 轉落하고 그 維持에만 留意할 정도였다.

더욱이 圖書館政策은 찾아 볼수 없고 그만큼 文教行政의 圈外에서 있었으니 이러한 與件속에서 圖書館의 成長을 期待한다는 것은 緣木求魚格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緊要한것은 圖書館政策의 確立이며 그 政策을 밀고 나갈 獨立된 行政分野의 設置다. 그것은 局이 못되면 課程度라도 좋다. 이 獨自의인 分野없이는 비록 政策이 樹立된다 하여도 活潑하게 推進할 수도 없을 뿐더러 빈번한 人事에 따르는 長官 交替나 局, 課長 異動에 따라 政策遂行上 적지 않은 支障을 招來한다. 그것은 뚜렷한 行政分野가 없으므로해서 나타날 수 있는 政策引繼引受의 默殺 또는 弱化라는 現象의 憂慮가 多分히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一貫性있는 推進도 期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圖書館界의 昨今

우리 나라 圖書館界는 荆棘의 길을 걸어 왔다. 그 동안 多少의 進展이 있었다고 하면 大學圖書館과 數의으로 增加한 學校圖書館界를 들 수 있으니 이것은 이 分野가 學校附帶施設로서 또는 學校教育의 一環으로서 比較的의 수월하게 發展할 수 있었던 與件의 結果라 하겠

다.

오직 公共圖書館은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行政的 保護 育成 없이는 成長할 수 없다는 弱體性을 內包한 社會와 行政의 無關心속에 파묻혀 있었다. 昨今 京鄕 各地에서 公共圖書館의 數도 漸次 增加하고는 있으나 龍大한 人口에 比하면 아직도 前途 憂원하다.

그러나 일찍이 뜻 있는 분들에 依하여 圖書館協會라는 聯合體가 構成되어 韓國十進分類法, 韓國目錄規則의 發刊을 비롯하여 그 밖에 많은 事業을 實施함으로써 圖書館運營의 指針을 確立하였고 특히 圖書館法을 制定케 함으로써 法的 根據를 마련한 點 등은 圖書館界의 앞날을 爲하여 特記할 만한 일이라 하겠다.

더욱이 昨年 國立中央圖書館에서 開催되었던 全國公共圖書館長會議에서 論議되고 其後 累次의 研究會에서 檢討하고 作成한 全國市·郡·區單位 圖書館 設置 年次計劃은 當局과 社會의 關心을 이끌어 公共圖書館 發展의 하나의 契機를 마련하였다. 이 計劃은 現在 文教部에서 檢討中이니 그 實現을 爲하여는 꾸준한 努力이 必要하겠지만 어찌되었든 圖書館界의 앞날에는 많은 難題가 있다 할지라도 悲觀할 必要는 없을 것 같다.

■ 結 言

(1) 위에서 본바와 같이 圖書館은 行政的 保護育成 없이는 存立할 수 없는 氣弱性을 지니고 있으므로 政府의 助長策을 極力 이끌어 들여야 하며 그 具體的 方案으로서는 ① 政策을 確立토록 하는 것과 ② 圖書館擔當 行政分野를 獨立시키도록 積極 밀고 나가는 길이다.

(2) 圖書館은 營利團體도 權力機關도 아니므로 또 現時點에서는 社會의 冷待를 받기 쉬우므로 周旋에 同調者, 協力者를 扶植해 나가는데 恒常 努力하여야 한다. 圖書館 끼리의 聯合體는 勿論 重要하지만 利用者의 싸어움을 組織하여 圖書館이 설 발판을 구천하는 것도 重要하며 各級機關에 協調者를 얻어 두는 方法도 있을 것이며 各種行事를 자주 誘致하여 紐帶를 맺어 나가는 方法도 좋을 것이다.

(3) 圖書館協會도 活動範圍를 內部에서 外部로 幅을 넓혀야 한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圖書館도 相當數가 增加하였고 또 過去에 共通課題였던 技術部門의 事業도 많은 進陞을 가져 왔으므로 各館種別을 超越한 共通問題보다도 個別的인 問題가 더 많이 擡頭되기 시작하였다. 이 個別的인 問題들은 한 자리에 놓고 다룰 性質도 못되지니와 다룬다 해도 成果도 나지 않는다. 年例의으로 開催하는 大會가 한간 行事에 끝쳤든 理由가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 問題들은 各其 該當分野로 돌리고 圖書館協會는 大同 團結體로서 全體의인 立場에서 이들을 支援하면서 좀 더 視野를 넓혀 共通關心 事를 外部에서 發見하여야 한다.